

##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님의 분노(눅66)

성경말씀: 눅19:45-48

### 공생애 요약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왕국 선포, 회개와 믿음과 구원, 긍휼이 무엇인지 보여 줌: 세리와 창녀,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죽은 자,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빈부귀천, 남녀노소, 유대인 이방인  
원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주러 오셨다. 왕권을 지닌 메시아로(눅1:31-33)  
공생애 시작, 침례, 마귀 시험, 곧바로 마4:17, 마10:5-7, 그러나 하늘의 왕국을 가져오는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려는 자들이 거의 없다. 공생애 끝부분 가이사라 빌립보(마16:16), 교회 설립(18),  
죽음 예고(21-23), 십자가 사건 전에 세 번이나 죽음, 매장, 부활 예고, 제자들도 알지 못함  
드디어 공생애 끝, 십자가 처형 나흘 전에 종려 주일이라 하는 일요일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유월절, 메시아 기대(많은 이적과 표적), 슄9:9 예언을 이루시려고 나귀 새끼를 가져다가 타시고 입성  
스9:9, 1. 의로우시다, 2. 구원을 소유하신다, 3. 겸손하시다, 4.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를 고대하는 백성의 종려나무, 호산나 외침: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을 찬송할지라도”  
(시118:22-23, 25-26),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하신다. “내가 왕으로 왔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보시며 슬피 우심: 우시는 이유, “네 화평에 속한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흘 뒤에 나를 배반할 것이다”, “평화를 잃는다.” 재림 때까지  
40년 뒤에 예루살렘의 황폐, 110만 명 살해, 성전 붕괴,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고후6:1-2,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 구원의 날

### 성전 정화

성전으로 들어가 사고파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함(45), 성전은 기도하는 집(46), 강도의 소굴(46)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생애 시작 후 첫 번째 유월절에(요2:13-17)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14), 가는 노끈,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내쫓음(15)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16), 강도의 소굴=장사하는 집  
예수님의 분노(17, 시69:9): 사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분노,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님의 분노>  
분노 1: 성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기도(예배)가 아니라 장사로 생각함  
분노 2: 마23장, 하나님을 대하는 종교인들의 태도(서기관, 바리새인, 위선자들), 4-5  
8번의 “화가 있을지어다”, 독사의 자식들아(33), <종교의 도시를 떠나라>

예수님 3년 반 공생애 요약: ‘종교와 종교 지도자 부수기’, 결국 종교인들이 메시아 거부(마23:37-39)

### 성전 역사

성전: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물, 속죄일(7월 10일),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민족의  
죄 속죄, 유대인 종교의 핵심,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종교로 전락하면서 썩게 됨  
이집트 탈출 이후, 40년 광야 생활, 예배를 위해 하늘의 성막의 모형대로 성막을 짓게 함(BC1500)  
출25-40, 16장에서 자세히 성막 양식을 주고, 결국 출애굽 후 다음해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기 시작하여  
(출40:1), 2월 1일에 세워짐(출40:17), 구름 기둥, 불기둥(출40:38): 하나님의 임재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증언 궤(언약 궤), 궤 위에 긍휼의 자리, 속죄가 이루어짐  
레위기에는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이 자세히 기록됨: 하나님은 거룩한 분, 죄가 있으면 죽는다  
죄를 처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헌물, 절기, 속죄일(16장), 17장: 피의 속죄(11, 히9:22)  
이 모든 일을 집행하기 위해 사람들이 필요함: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을 지정함  
제사장은 아무나 못한다. 모세나 그의 아들들도 안 됨. 오직 아론의 아들들(민16:40)  
그러다 보니 제사장 직이 특권이 되고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음  
레10장: 아론의 큰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 향로에 이상한 불을 담았다가 즉사함: 결고  
제사장 직이 특권이지만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안 됨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 500년이 흘러가면서 제사장직 남용: 사무엘기 상,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  
2장을 보면 주님의 헌물을 멸시함(주님께 드리기도 전에 좋은 것 가져감, 12-17)

여인들과 간음함(22), 둘이 한 날에 죽임을 당하고 엘리도 죽음, 또 다른 경고 이후 다윗이 왕이 되어 왕국을 확고히 한 뒤 하나님의 집을 짓기 원함(삼하7:2)

하나님의 말씀: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고 네 아들 솔로몬이 짓는다, 많은 재로 남기고 죽음 솔로몬이 금으로 되 가장 아름다운 집을 모리아 산에 세움(왕상6-8), 하나님의 임재(왕상8:10-11) 솔로몬의 기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소서(왕상8:29-30)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기도도, 중요 사건, 대하에도 기록, 기도 후 불이 내려와 사름(대하7:1)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게 되었다. 안에서 기도하고 어디에서도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함, 바빌론 포로 생활, 다니엘(단6:10),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세 번씩 기도 제사장들이 국가와 백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이것이 부패되기 시작하였다(사56:7), 기도하는 집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에 장사치들이 생기기 시작함

돈을 벌기 위해 제사장들이 장사치들과 결탁: 성전 제물은 반드시 성전에서 산 것으로만 해야 한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져온 것은 이런 저런 이유로 불합격, 울며 겨자 먹기로 2-3배 주고 삼 종교인들의 백성 세뇌 작전: 성전에 하나님이 있으므로 성전만 잘 꾸미면 만사 OK

우리는 안전하다, 아무도 우리를 침략할 수 없다.

바빌론 포로 생활 바로 직전의 유다, 예레미야가 외쳐도 듣지 않음(렘7:2-11)

회개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행위를 고쳐야 한다(3).

너희가 악한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하려고 구원받았다고 함(10)

내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11): 오늘 주님의 말씀(눅19:46)

들로 된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해도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성전 자랑(21:5-6), 40년 뒤 폐허 교회는 어떤가? 처음에 초대 교회, 핍박받으며 집에서 숨어 예배, 산에서 들로 피해 다니며 예배 313년 밀라노 칙령, 정치와 종교의 결탁, 천주교라는 제도가 형성됨, 이때부터 성당 건축이 시작됨 로마의 베드로 성당(수십 년 공사, 면죄부 판매, 아프리카에서 오벨리스크를 옮겨옴, 미켈란젤로의 그림 등), 예수님의 피를 통한 단번 속죄 부인, 지금도 미사를 통해 연속해서 예수님을 제물로 드림 독일의 쾰른 성당(1248년부터 600년에 걸쳐 완공됨), 스페인의 가우디 성당(1883년, 아직도 100년)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교회가 성전과 제사장 문화를 쫓 피우면 이미 망하는 길로 들어선 것이다.

과거에 한국 교회는 예배당, 지금은 천주교처럼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한다. 5만 성전, 본 성전, 지성전 예배당이 성전으로 바뀌면 목사가 필히 제사장이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을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마27:51; 막15:38; 눅23:45).

다시는 들로 된 성전과 인간 제사장 불필요, 이것을 구축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미국의 침례교회들: 예배당을 다 강당이라고 부른다. 목사를 페스터라고 부른다. 성전 제사장 No!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주님이 성전에서 하신 일: 날마다 가르치심(47), 제자들이 한 일: 성전에서 가르치고 선포함(행3-4)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맹신이 아니다.

그것은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이 교회가 해야 할 일: 건물이 아니라 교육과 선포, 속사람의 변화 수천억짜리 건물에서 예배를 드려도 사람의 속이 썩어 있으면 죽을 때까지 다녀도 소용없다.

사람들의 종교심: 수천억 건물, 파이프 오르간, 괜히 눈물이 나고 엄숙한 분위기, 너무나 많은 사람들, 거기 있으면 나도 구원받은 것 같은 생각, 종교인들이 바로 이것을 노리는 것이다.

요4장의 수가 성 여인(요4:20-21), 주님의 말씀(22-24)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들로 된 성전은 파괴되었고 불필요하게 되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전3:16-17). 교회 건축, 필요가 있으면 필요에 맞게 짓는다. 오직 말씀 선포와 교육 그리고 교제를 위해 건물이 하나님이 아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가? 혹은 성전 등의 건물, 헌금, 햇수, 혈통 자랑, 예수님이 거하는 성전(구원)